

# 국정원 국조특위 오늘부터 가동

민주 김현·진선미 특위위원 사퇴로 일단락

증인 채택 쟁점… 특위 공개 여부 추후 논의

민주당 김 현·진선미 의원이 1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장을 전격 자진사퇴하면서 18일부터 국정원 국조특위가 가동된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합의부족과 예상돼 완전 정상화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진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

퇴 의사를 밝힌 뒤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오직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길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한다. 오직

나라를 위한 저희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새누리당이 폐하는 것을 사랑으로 달래드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후임으로 김민기 박남준 의원을 경찰청을 대상으

로 하고, 보고 일시는 법무부 24일, 경찰청 25일, 국정원 2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 보고에 대한 공개·비공개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NLL 문건 유출 문제의 국조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NLL 문건 유출 문제를 국조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측이 반대해 이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이날 교환했고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하라"

민주당 국정원개혁 운동본부 산하 국민홍보단은 17일 광주시 북구 밀바우시장 입구 등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거리 홍보전을 펼쳤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 '국정원 개혁' 호남서 불지피기

광주 거리홍보전… 오늘은 전남

민주당이 17일 광주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홍보에 나섰다.

지난 16일 전북 행사에 이어 호남에서 두 번째로 당 국정원개혁 운동본부(본부장 추미애) 산하 국민홍보단(단장 우상호)이 주관하는 행사다.

이날 광주 홍보에는 우상호 단장, 김현미 상황실장, 박홍근 간사, 박영선·강기정·이용섭·임내현·진선미·은수미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거리 홍보전을 펼쳤다.

우상호 단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민심이 곧 대한민국의 민심이다'며 '광주시민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분노를 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 단장은 "지난 2주 동안 수도권

을 중심으로 국민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상당수 국민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새누리당이 이런저런 광계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미루고 있고 정부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적 동력 쌓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의원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가 지탱될 수 없는 문제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홍보단 소속 의원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광주 상무지구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국민홍보단은 18일엔 순천·목포·여수·광양 등에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뒤 영남 등 전국을 돌며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민협, 민선 5기 3년 시정 평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시가 행정, 경제, 환경 분야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 복지, 여성, 청소년·교육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협은 17일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5기 3년 시정 평가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광주시장 공약 이행 및 8개 분야에 걸쳐 실시한 시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협은 광주시가 시민과의 소통 행정, 각종 경제 지표상의 외형적 성장, 생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자치행정, 경제,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중앙 정부 정책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광주형 복지' 구현이 안 된 점, 민선 5기 100대 주요 추진 과제에 여성관련 정책이 배제된 점, 청소년 관련 각종 프로그램의 축소 폐지와 높은 자살률 등 사회복지, 여성, 청소년,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밸류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광주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광주형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광주시가 시민과의 소통 행정, 각종 경제 지표상의 외형적 성장, 생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자치행정, 경제,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시 행정·경제 '긍정', 복지·노동 '미흡'

선암동 전원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기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원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원료(각종 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로도 접

찾아오는길 선운지구

영광 호남대학교

어등산 골프장

어등산 빌리지

도심 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사종합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기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십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 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 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 원 : ○○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 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 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첨단 월계동 상가건물 매 28억(보2.8억/월1,600만)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의 다수

▷월신동 디로빈 6층건물 매 14.5억(보2.8억/월810만)

▷두암동 5층건물 매 8.5억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 대1300㎡, 건400㎡) 보2 천 월3백만

대지/전답

▷니주시 평생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완도군 양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장성군 삼계면 대지 4130㎡(1,250평) 1.7억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신창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의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첨단 매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 대선개입 증거 제시 '국정원 개혁' 전도사

국조·NLL 정국 맹활약 박영선 법사위원장

"남재준 원장 해임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



국가정보원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의를 촉발시킨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활약이 돋보인다.

박 위원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국조조사 특위에 참여하면서 국정원 개혁의 명분을 쓸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당 국정원개혁 운동본부 산하 국민홍보단의 일원으로 전국을 누비며 국정원 개혁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박 위원장은 17일에도 광주를 찾아 국정원 개혁 흥보활동을 펼쳤다.

국정원 개혁의 움직임이 이처럼 활화되면서 타오른 뒤에는 박 위원장이 있었다. 정확히 한 달 전인 지난달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대선 때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 우리는 NLL(북방한계선) 발언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때 공개했으면 선거를 쉽게 이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박 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서해 NLL 포기 발언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짚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갔다"며 "국정원과 원 전 원장은 마치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는 그 축약본을 검찰에 밀봉해서 주는 게 국정원 시나리오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NLL 포기 발언 논란은 다시 불붙었고 이 과정에서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시작된 국정원 개혁 목소리는 더욱 확산하게 됐다.

즉,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축약본과 원본 공개 등으로 아당을 궁지에 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여론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 포기로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반전됐고 급기야 국정원 개혁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은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트위터 발언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 증거를 계속 제시했고 나아가 개혁의 명분을 쓸어갔다.

박 위원장은 당시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당에 들어온 국정원으로부터의 제보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것(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안 까는 척하면서 대신 검찰에게 끌려면서 그 서류를 밀봉을 해서 갖다줬다"며 "원 전 원장과 그 당시 담당검사가 이것(대화록)을 잘 것이라 말하거나 문제를 놓고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NLL 관련 밀언도 처음부터 끌고 와서 박 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서해 NLL 포기 발언이 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오해받을 부분만 죽약해 만들고 보여서는 누군가가 청와대에 전달했고 그것을 새누리당 정부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 위원장은 당시 마무리발언에

서 "우리 당에 들어온 국정원으로부터의 제보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것(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안 까는 척하면서 대신 검찰에게 끌려면서 그 서류를 밀봉을 해서 갖다줬다"며 "원 전 원장과 그 당시 담당검사가 이것(대화록)을 잘 것이라 말하거나 문제를 놓고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NLL 관련 밀언도 처음부터 끌고 와서 박 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서해 NLL 포기 발언이 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오해받을 부분만 죽약해 만들고 보여서는 누군가가 청와대에 전달했고 그것을 새누리당 정부에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답 뒤 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합의서의 본질적인 문제가 재발방지 보장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와 관련해 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